



주위의 어떤 유혹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동의보감>의 허준과 같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세아제강 임종표 차장.  
세아제강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쏟는  
그가 있어 세아제강의 밝은 내일이 기대된다.

세 아 가 조  
2012.09+10

SeAH



신념과 열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도(正道)를 걷는다!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임종표 차장  
확고한 신념과 포기할 줄 모르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세아의 미래를 더욱 더 빛나게 해준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랍니다.

하지만 가지를 잘 치고, 받쳐 준 나무는  
곧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사람도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의 관심을 느끼면 더 열심히 하고,  
충고를 받으면 옳고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관심을 자양분 삼아  
더욱 잘 자라는 나무처럼  
따뜻한 칭찬과 충고,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아인을 기대합니다.



# Vol. 341

SEPTEMBER | OCTOBER 2012

## C o n t e n t s



### FOCUS ON

- 02 Hot & Issue**  
- 이운형 회장,  
대한금속재료학회 금속재료상 수상  
- 세아에스 유덕상 대표,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대상 수상  
- 세아특수강,  
중국 천진 합작법인 설립 추진  
- 세아그룹, 통합사육 입주로  
새로운 도약 위한 발판 마련

- 06 SeAH Special Report**  
- 세아베스틸,  
세계철강협회(WSA) 정회원 가입  
- KISNON 2012 참가

- 10 Open Your Team**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 16 SeAH Super Star**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임종표 차장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IMAGINE SeAH

- 20 프롤로그**  
Harmony
- 22 뿌리 깊은 나무**  
조화 속에서 완벽함 찾은 카라얀
- 24 테마 인터뷰**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
- 26 테마 현장**  
세아홀딩스  
핵심가치 워크숍 현장
- 28 테마 스토리**  
2012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후기
- 30 직장인 생활백서**  
조화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다름을 인정하자
- 32 우리말 바로 쓰기**  
좌충우돌 세철 씨의 직장어 사전

### HARMONY OF SeAH

- 34 I ♥ SeAH**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리더십
- 38 지구촌 별별사람**  
인도, 얼마나 알고 있나요??
- 40 어느 멋진 순간**  
세아홀딩스  
미녀 사총사의 바리스타 체험기
- 44 세아뉴스**
- 47 사우동정**

**세아가족**  
세아그룹 가족들을 위한 사보

<세아가족> 통권 341호 2012년 09+10월호

발행일 2012년 10월 26일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홀딩스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3783-8163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표지촬영 다부스튜디오 02-766-8025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운형 회장, 대한금속재료학회 금속재료상 수상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이 대한금속재료학회가 주최하는 2012년 학회상 시상식에서 금속재료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10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년 대한금속재료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되었다.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은 1960년 세아제강 설립 이래 세아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전문그룹으로 성장시키고, 다양한 철강소재 혁신과 개발로 철강소재산업은 물론, 수요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학회 최고상인 금속재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운형 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우수한 철강금속 기초재료들의 공급이 밑받침되어 우리나라의 조선, 가전, 기계, 중장비,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효율적인 생산체제와 기술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왔다면, 앞으로는 더욱 월등한 소재를 개발해 치열해진 경쟁환경을 헤쳐나 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수상은 세아인 모두가 앞으로 학계와 더욱 협력하여 잘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한금속재료학회는 재료공학 학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금속공학 관련 학회이다. 매년 정기총회와 함께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 동안 금속재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나 연구자들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이 후원하는 2012년 세아해암학술상 시상도 이어졌다. 수상자로는 약 140여 편의 논문 실적과 19건에 이르는 특허 및 프로그램 등록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해온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이영국 교수가 선정되었다. 최근 세계 최초로 고망간 TWIP 강을 개발하였으며, 지난해 제1회 고망간강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서 유치하며 한국 철강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다.

## 세아에샵 유덕상 대표,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대상 수상



세아에샵 유덕상 대표가 2012년 제21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대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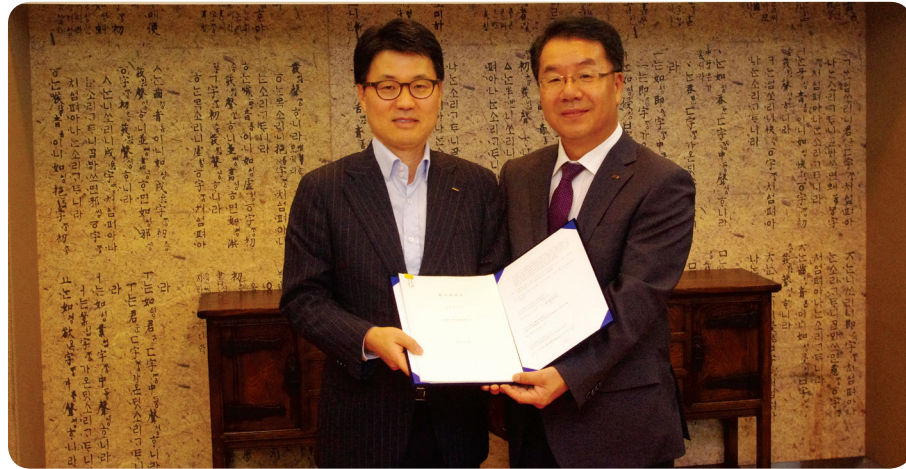
경상남도는 9월 20일 노사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자 및 사용자 4명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시상식은 10월 4일 경상남도 도청에서 열렸다.

산업평화상은 노사 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유덕상 대표는 한가죽협회의 운영, 계층별 간담회 개최, 등산경영 등 소통을 위한 열린 경영을 실천하며 노사 화합을 통한 노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써왔다. 특히 합리적인 성과 평가와 실적에 부합하는 성과 배분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근로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나아가 각종 기관의 봉사활동, 시민단체와 연계한 기부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운영에도 열정을 쏟으면서, 창립 이래 27년간 한 차례의 노사분규가 없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의 대상에 선정되었다.

한편, 10월 9일에는 창원시가 주최하는 2012년 창원시 산업평화상에도 세아에샵 유덕상 대표와 생산부문 조인호 그룹장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985년 설립 이후 무분규 교섭을 통한 임금단체협상 체결로 노사 상생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온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수상에 이르렀다. 시상식에는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 많은 기업인과 근로자,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자리했다.



## 세아특수강, 중국 천진 합작법인 설립 추진



## 세아그룹, 통합사옥 입주로 새로운 도약 위한 발판 마련



〈세아그룹 통합사옥 외관〉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90  
위 치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연면적 51,096㎡(약 15,454평)  
규 모 지하 7층~지상 32층

세아특수강이 9월 27일 포스코차이나와 합작계약을 맺고 중국 천진에 연간 3만t 규모의 CHQ 선재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법인의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북경공항과 천진공항, 천진항이 인접해 있고, 인프라 시설이 양호한 천진경제기술 개발구 일선과학공업원 내에 자리하고 있다. 합작법인은 세아특수강 75%, 포스코차이나 25% 지분 구성으로 설립되며, 총 1,933만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다.

세아특수강은 2007년 포스코특수강과 합작 투자를 통해 중국 강소성 남퉁에 포스세아선재(남퉁)를 설립하여 중국 자동차용 선재를 현지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성장에 따른 CHQ 선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화북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천진에 두 번째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는 포스세아선재(남퉁)에서 CHQ 선재를 생산해 화북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나, 천진공장이 가동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납기 단축, 고객 밀착 서비스 강화, 화북지역 신규 수요 확대, 제품 개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포스코 역시 내년 상반기에 4선재 공장이 신설되므로 증가되는 생산 능력에 대비하여 중국 내 선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천진지역 합작법인은 오는 10월에 중국 정부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인설립 인허가 추진을 시작해 공장 건설과 설비 설치를 진행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강전문그룹 세아가 창립 52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통합사옥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사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세아홀딩스는 9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의 메세나폴리스 복합단지 내 업무동으로 올해 말까지 입주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하 7층, 지상 32층 규모를 갖춘 서교동 통합사옥에는 세아홀딩스를 비롯해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등 계열사 임직원 6백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 세아홀딩스는 회사의 급속 성장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그룹 차원의 통합사옥 마련을 적극 검토해왔다. 그간 세아는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립 사옥의 신축이나 매입을 자제하며 내실경영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사세가 확장되면서 절대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서울 남대문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 4개 빌딩과 전국 지방 사업장에 흩어져 있던 계열사의 기획, 영업 등 주요 기능 부서들을 집결시키게 됐다.

통합사옥 입주를 계기로 계열사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철강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과 함께,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신속한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통합사옥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자유로 진입이 용이하다. 지하철 2, 6호선은 물론, 공항철도를 이용한 도심으로 접근도 편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입주는 12월 중 세아제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세아베스틸, worldsteel ASSOCIATION 세계철강협회(WSA) 정회원 가입

세아베스틸은 10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연례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되었다. 국내 철강사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에 이은 5번째이다.

글: 세아베스틸 기획팀 하성진

### 【투자현황】

| 구 분  |      | 2003년  | 2012년 현재 |                                                   |
|------|------|--------|----------|---------------------------------------------------|
| 특수강  | 전기로  | 60t 2기 | 100t 3기  | - 전기로 2기 합리화<br>(60t → 80t → 100t)<br>- 전기로 1기 신설 |
|      | CAPA | 85만t   | 220만t    |                                                   |
| 대형단조 | 전기로  | -      | 150t 1기  | - 전기로 1기 신설                                       |
|      | CAPA | -      | 30만t     |                                                   |
| 계    |      | 85만t   | 250만t    |                                                   |



### 세계철강협회, 세아를 인정하다

세계철강협회 정회원은 연간 조강 생산량 200만 Short Tons(약 180만 Metric Tons) 이상을 생산한 철강회사가 신청한 경우 내부 승인절차를 거쳐 자격이 부여된다. 세아베스틸은 2011년 조강 생산량 약 220만 Metric Tons을 기록하여 정회원 자격을 갖추어 회원가입을 신청하였고,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추천된 후 이번 연례총회에서 최종 가입이 승인되었다.

세계철강협회 회원이 되면 1. 철강산업 관련 최신 기술 및 경제 데이터 습득 2. 철강 이슈에 대한 연구자료 및 보고서 습득 3. 시장개발 관련 프로그램 및 계획 참여 4. 회의, 콘퍼런스 및 분과위원회 참여 등이 가능하다.

회원사들은 위와 같은 혜택을 통해 최신 철강 동향을 파악하고 회원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 멤버로서 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철강산업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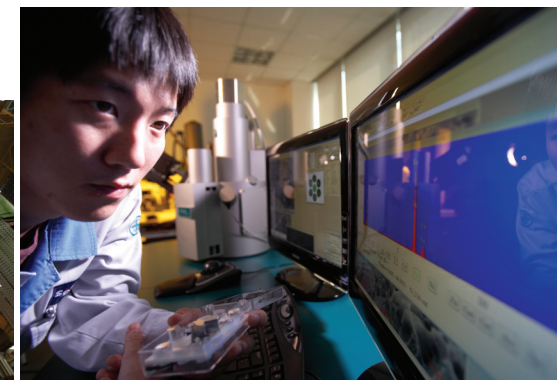
이번 연례회의에는 아르셀로 미탈의 락시미 미탈 회장, 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의 무네오카 쇼지 회장 등 세계 주요 철강사 CEO와 관계자들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WSA 정회원 후보 회사 CEO 자격으로 초청된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과 포스코 정준양 회장, 현대제철 우유철 사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세아베스틸과 Byelorussian Steel Works(벨라루스), Çolakoğlu Metalurji A.Ş.(터키)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2013년 철강산업의 발전과 위기 극복, 철강시장 및 원자재 전망, 안전문제 등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WSA 회장단에 선임되고, 포스코가 혁신대상을 받음으로써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 세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다

이운형 회장은 콘퍼런스를 통해 올해까지 WSA 회장을 역임한 중국 안산강철 장사오강 사장을 비롯해 세아의 계열사와 거래하고 있는 JFE Holdings 바다 사장, JFE Steel 하야시다 사장, 일본 대표 특수강 업체 Aichi Steel 후지오카 사장, Daido Steel 시마오 사장, 미국 내 드릴칼라바 경쟁업체인 Timken의 리처드 카일 사장 등 주요 철강사 CEO들과 만나 철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교류를 가졌다. 세계철강협회는 1967년 설립되어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약 170개 철강회사 및 관련 협회, 연구기관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철강산업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산하에 경제, 환경, 기술 등 총 8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연구조사, 토의, 자료수집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발전과 철강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전략적 도움을 주고 있다.

세아베스틸의 제강생산 능력은 세아의 계열사로 편입될 당시인 2003년 85만t 규모였으나 수요 증가에 한발 앞서 시의적절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현재 제강 250만t(특수강 220만t, 대형단조 30만t)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투자는 신규 설비 도입을 최소화하고 기존 설비의 합리화를 통해 공급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매우 경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올해 70만t 규모의 Billet 연주기 투자가 최종 완료되면 제강 320만t 규모를 갖추게 된다. 향후 창녕공장용 소재를 창녕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110만t 규모의 제강공장도 건설하여 제강 430만t(특수강 400만t, 대형단조 30만t) 생산체제의 글로벌 특수강 전문 기업으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 KISNON 2012 제2회 국제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전 참가

# 세계에 전파되는 세아의 이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2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12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전(KISNON 2012)이 개최되었다. 2010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되는 산업전에는 12개국 140개 업체가 참여하여 철강, 비철금속 소재 및 금속가공설비 등을 선보였으며 국내외 약 2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또한 각 단체와 여러 회사들은 전시회 기간에 맞춰 킨텍스 회의실에서 총 14건의 각종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학술적인 면에서도 질을 높였다. 글: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송준걸 대리



### 세아그룹 이미지 홍보에 초점

세아에서는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세아에샵, 세아메탈, 세아 M&S 등 총 6개 사가 공동 부스를 꾸며 참가하였다. 철강소재 전문으로 특화된 세아그룹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KISNON 2012' 뿐만이 아닌 여러 관련 산업분야의 전시가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에게 세아의 제품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 리뉴얼한 세아의 CI를 공식적으로 처음 선보이게 되면서 부스 디자인이나 테마에도 적용을 하였다. 부스 주제는 '세상을 아름답게, 세아'를 메인 콘셉트로 잡아 진행을 하였으며, 2가지 테마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제품들'로 나누어서 그룹 이미지를 보여주는 존(Zone)과 각 사의 대표 제품을 홍보하는 존으로 구분하여 전시를 하였다.

그룹 이미지 존은 세아가족들의 모습을 담아 세아 문화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총 6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었다. 섹션1에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내부 임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세아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당선작과 응

모작을 활용한 포토월을 꾸몄으며, 섹션2에는 각 계열사를 돌며 세아가족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편집하여 상영하였다. 또한 섹션3~6에서는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과 역사 그리고 주요 산업을 한눈에 보여주는 존을 꾸며 관람객에게 세아그룹의 이미지를 홍보하였다.

### 세아 제품의 우수성 전달

계열사 존에서는 산업전에 참가한 6개 사가 각 사의 대표 제품을 전시하였는데, 세아제강은 송유관 및 배관용 강판을 선보였으며,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품과 대형단조품을 미니어처로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또한, 세아특수강은 CHQ WIRE, CD BAR, BAR TO BAR, PEELED BAR 제품을 소개했으며, 세아 ESAB은 조선, FPSO, 해양플랜트에 주로 사용되는 용접재료 및 용접제품을 소개하였다. 세아메탈은 Rack BAR와 각종 와이어를, 세아 M&S에서는 각종 몰리브덴 제품을 관람객이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벽면에는 2~3개의 패널로 각 사 이미지를 홍보하였으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각 사의 제품과 공장 전경, 문화 등을 홍보하여 관람객에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세아의 전시 부스에서는 부스 중앙에 관람객들이 한눈에 세아그룹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42인치 LCD TV 40개를 탑 형식으로 쌓아서 만든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였다. 미디어 아트에는 세아가족들의 모습과 각 사의 공장, 리뉴얼된 CI 등을 약 1분 30초 편집된 영상으로 만들어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더 나은, 더 많은  
제품을 위한 가장 든든한 초석

철강이 산업의 쌀알이라면 제강설비팀은 그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불을 조절해 윤기 흐르는 밥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다. 오늘 Open Your Team의 주인공은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세아베스틸의 숨은 공신으로 손꼽히는 그들을 만나보자.

## 설비의 전 생애를 관리한다

새만금 자락에 위치한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을 위해 만나기 위해 세 시간 여를 달려 도착한 군산. 국내 최대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공장답게 드넓은 부지 이곳저곳에 우뚝 솟은 공장들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만날 제강설비팀은 세아베스틸의 핵심인 제강공장과 연주공장의 설비 관리를 맡고 있는 곳. 쇳물을 끓여내는 전기로가 4기, 연속주조기 4기 등을 포함, 관련된 부대 설비와 부설비들을 관리하면서 보다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세아베스틸의 핵심 팀이다. 1937년 설립돼 대한민국의 기계산업을 선도해온 세아베스틸에서 설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기에 설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은 제강설비팀의 하루를 치열하고 바쁘게 만든다.

설비가 설치되기까지의 공정을 먼저 살펴보자. 먼저 조업쪽에서 설비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해당 설비를 도입해야 하는 사유, 효과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강설비팀의 플레이가 시작된다. 기술적으로 설비에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구매 비용은 얼마인지, 설치, 가동까지의 총 소요시간 등을 꼼꼼히 자료화해 조업쪽에 넘기고, 필요성은 자체 투자심의회와 의논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투자결정 뒤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다시 또 눈코 뜰새 없이 분주해진다. 설계, 검토, 검수,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까지 일사천리로 일을 시켜야 하는 것. 제강설비팀의 조수진 팀장은 “설비 투자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수익률”이라며 “설비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전 생애를 관리하는 것이 제강설비팀의 핵심 업무”라는 꼼꼼한 설명을 덧붙인다.



왼쪽부터 박원식 대리, 정진우 사원, 한병준 차장, 최용덕 차장, 진만기 대리, 권문혁 사원, 조수진 팀장, 윤종건 대리, 사홍만 사원, 임재혁 과장, 임종혁 사원, 주봉주 대리, 최강호 사원, 신성훈 과장





군산공장에 신 Billet 연주기 공장이 먼저 신설된 것. 신 Billet 연주기 도입 과정에서도 제강설비팀이 제몫을 다했지만, 조 팀장은 설비지원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공을 돌린다.

“신 Billet 연주기 공장을 통해 기존에 생산되던 사각 Billet 외에도 라운드 Billet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다각화는 물론 생산량을 높이는 데도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신 Billet 연주기 덕분에 세계철강협회 정회원인 것이냐고 축하인사 겸 질문을 던졌더니 조수진 팀장이 웃음을 짓는다.

“세계철강협회(WSA, World Steel Association)는 연간 조강 생산량이 200만t 이상이 되면 정회원 가입조건이 돼요. 우리 세아베스틸은 이미 작년에 200만t 생산을 넘었습니다. 신 Billet 연주기 도입 이전에 여건은 갖춘 셈이지요. 설비를 풀가동하면 300만t 정도의 생산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생산량이지요.”

조수진 팀장의 얼굴에서는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난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진촬영을 위해 모여든 14명의 직원들. 신입부터 고참까지 모두 허물 없는 태도로 촬영을 즐기며 박장대소를 한다. “우리는 모두 한가족”이라는 권문혁 사원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던 유쾌한 시간이었다. 사무실에 14명, 현장에 61명, 총 75명이 뭉쳐 일하는 제강설비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무기로 한 신 입과 ‘연륜과 경험’을 재산으로 한 베테랑들이 가족처럼 뭉쳐있으니 세아베스틸과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 예산 관리,유지보수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수공업은 사람의 손이 제품의 질을 결정하지만 철강산업은 우수한 설비가 근간이 되어야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산업이다. 때문에 내수와 수출 시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세아베스틸의 제강설비팀이 갖는 자부심은 곧 책임감과 다름이 아니다. 다른 팀과의 적극적이면서도 원활한 협업은 조수진 팀장이 업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 수요자들의 요청을 가장 먼저 받는 판매팀, 자체나 예산관리를 맡는 구매팀 모두 제강설비팀과 수많은 의논과 대화가 필요한 부서이며 그 중 조업과 설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할 만큼 각별하다. 미팅과 회의를 통해 생산량, 조업 시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나은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데, 요절처럼 잘 들어맞는 협업이야말로 생산량 증대와 양질의 제품 생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탓이다.

“어느 한 팀만 잘한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하는 거지요.”

하나로 똘똘 뭉쳐 정진하는 제강설비팀이 이루어낸 성과는 가히 주목할 만하다. 설비 준비부터 폐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비와 함께 하는 그들에 대한 평가 요소는 고장 강도율 부문과 예산관리 부문, 두 가지. 설비의 고장이 얼마나 많은가를 평가하는 고장강도율은 초기에는 1.4%였으나, 지금은 0.8%로 낮아졌다. 효율적이면서도 정교한 설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설비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 수명을 전산화시켜 해당 날짜가 되면 어느 설비의 어느 부품을 교체하라, 수리를 하라는 지시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공장별로 보수주기를 결정하고 정례화시켜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보수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압연 쪽에까지 확장시켰다. 예산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도 빼놓을 수 없다. 교체하는 순서가 부품 → 장치 → 설비가 되는데 초기에 부품 위주로 교체를 하다보면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장치 전체를 교체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오로지 부품 교체에 주력했던 초기에서 벗어나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을 줄이고 장치의 정밀도를 유지하며, 시간싸움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유무형의 형태로 예산을 줄인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세계철강협회 가입

현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는 새로운 Billet 연주기가 가동되고 있는 신축 공장이 세워져 돌아가고 있다. 창녕에는 간 54만t 규모의 제2공장을 건설 중인데 1차적으로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팀장 조수진



제강설비팀은 일의 특성상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뒤에서 서포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 제품의 질을 결정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생산을 유지보수한다는 점에서 팀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설비의 역할과 책임을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는 덕분이지요. 우리 팀의 특성이 있다면 현장에 직접 나와서 익히고 배우는 실무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현장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감히 자평합니다. 사무기술직, 현장직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강설비팀의 방침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기본의 실천입니다. 사규, 법규, 근태 등 기본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두 번째가 토론 문화의 활성화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모여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주체는 반드시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모든 일의 주체로서 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지식 근로자 육성입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도록 늘 주문합니다. 전문 교육을 비롯, 계속해서 나오는 신기술에 발 맞춰 늘 자기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요구하지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환경을 지향합니다. 정비를 하다보면 온통 기름투성이가 되는 것은 일상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보수 뒤에는 정리정돈과 청소를 반드시 해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우리 세아베스틸에는 필요한 설비들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생산량 증대를 위해 기존 설비를 추가하고 새롭게 지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적은 비용으로 보수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늘 야근, 철야, 시도 때도 없는 호출에 분주한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 그리고 이 말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 박원식 대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웃음)



세아호텔의  
제강설비팀

세아호텔의  
미래를 만드는  
연금술사들



**정진우** 사원 순박하면서도 일처리는 똑 부러지고 권문혁 사주와 쌍벽을 이루는 분위기 메이커  
**권문혁** 사원 쾌활하고 열정이 넘친다. 어느 곳에 가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한다.  
**최강호** 사원 고참급으로 후배 직원들을 잘 이끄는 든든한 형님. 매사에 알고자 하는 의지가 넘친다.



**주봉주** 대리 책임감이 강하며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아이언맨  
**박원식** 대리 침착하고 속이 깊다. 모든 일을 허투루 넘기는 것 없이 충실하게 대하는 성실맨



**최용덕** 차장 후배들을 야단 칠 때는 호랑이 같지만 안아줄 때는 확실하게 안아주는 사나이  
**윤종건** 대리 차분하면서도 끈기 있는 성격. 막강한 책임감은 보너스



**조수진** 팀장 인자하고 배려심 많은 상사로 직원들에게 인기 만발. 회사일은 물론 가정사까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는 따뜻한 스마일~



**한병준** 차장 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후배들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려고 노력하며 스스로 답을 찾게끔 유도한다.  
**사홍민** 사원 신입사원답게 항상 웃는 얼굴로 명랑한 분위기를 만든다. 열정적으로 일을 배우려는 의지가 가득한 사나이

**신상훈** 과장 대인관계가 좋은 마당발 스마~일. 손과 발이 빨라 믿음직하다.  
**진만기** 대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표를 내지 않는다. 늘 싱글벙글 웃으며 팀의 허리 역할을 잘 수행한다.



**임종혁** 사원 매사에 진지한 학자 스마일~ 맡은 바 일은 철저히 완수한다.  
**임재혁** 과장 끈기 있고 침착하다. 마음이 따뜻해 늘 직원들을 감싸고 독려한다.





## 자신의 길에 대한 신념으로 전진하다

### 열정으로 가득 찬 선봉자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생각하며 동의보감을 편찬한 의학자 허준과 일에 대한 열의와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임종표 차장은 닮은 부분이 많다. 세아제강을 빛나게 할 목표라면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성공으로 이끄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 이 모습이 세아제강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한다.

### 세아제강의 밑그림을 그린다

세아제강 기술연구소는 강관을 생산하는 포항공장의 대들보이다. 현재 세아제강은 포항과 군산에서 강관 생산이 이루어진다. 포항공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군산공장은 원가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이들이 뛰어난 강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재료 연구,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술연구소, 임종표 차장이 있는 설비기술파트이다. 임종표 차장은 세아에 입사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기술연구소에서 설비 투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아인들과 함께 세아제강을 키워왔다. 임차장이 소속된 설비기술파트는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새로 신설할 경우 예산을 책정하고, 설비의 콘셉트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 근거를 마련, 투자를 계약하고 실행하는 부서다.

현재 그는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 진행하고 있다. 포항공장 설립 이래로 가장 큰 투자가 이뤄졌다는 이번 프로젝트는 강관 생산에 'JCOE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2013년 1월 1일 첫 제품 생산을 목표로 삼아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JCOE 방식은 강관 생산방식 중 플레이트 방식에 속하며, 강관의 끝이 말리는 각도에 따라 J, C, O 형태가 형성되는 것과 Expanding(팽창시키는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JCOE 방식이 도입되면 최대 두께 50m, 길이 18m의 강관을 약 20만t 가량 생산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구조물, 화학용으로 판매하던 기존과는 달리 대형 가스라인과 같은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임 차장은 세아제강의 강관 제조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근거를 JCOE 프로젝트가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기에 이번 프로젝트는 결국 세아 제품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우수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만드는 열정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허준이 동의보감을 집필하는데 끊임없는 노력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듯이 임종표 차장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도입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벗어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려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비용을 투자받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해서 호응을 이끌어 내는 등 단계적으로 준비했다. 결국 그의 의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차장

임종표





자가 결실을 맺어 JCOE 방식 도입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도입했다고 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등 총 책임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전체를 위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사소한 이야기를 신경쓰다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에 저는 일을 시작하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편이죠. 그렇게 큰 틀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주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채워나갑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직원들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임 차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세아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열정을 모두 던진 곳이 세아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한 회사가 점차 발전하는 모습, 그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자부심과 희열을 느끼죠.” 특히 그가 하는 업무가 투자다 보니 마치 밑그림을 그려서 채색하고 그림을 완성시키듯 아무 것도 없는 공터에 공장이 세워지는 것이 크게 와 닿는다.

자신이 있는 동안 세아제강을 명실상부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다른 대기업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 즉 세아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로 만들어라’라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JCOE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세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임종표 차장. 자신의 신념으로 한길을 걸어 동의보감이라는 길이 남을 의서를 집필한 허준처럼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뛰어 세아제강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될 그를 기대해본다.

## profile

이름 임종표

좋아하는 것 새로운 것을 찾는 것(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든다)

싫어하는 것 사소한 것에 얽매이는 편협한 생각

좌우명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노력하자)

1610년에 허준이 있었다면, 2012년에는 임종표 차장이 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빛나는 이유가 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들만의 뛰어난 모습을 찾았다.



## ‘동의보감’ 허준의 열정과 신념을 간직하다

01

**신념** 의학자라는 한길을 걸어온 허준과 세아제강 기술연구소 직원으로 시작해 Part Leader가 되기까지 오로지 세아만을 생각하며 일하고, 자부심을 키워온 임종표 차장. 이들의 모습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자신만의 신념으로 나아가는 당당함이 느껴진다.

02

**중간자** 어의로서 궁궐에서 지내면서 그 어떤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고 민심을 살피며 궁중과 민심 사이에서 조화를 이룬 허준. 임종표 차장 또한 Part Leader로서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서 중간자로서 조화를 이룬다.

03

**도전정신** 조선시대에서는 명나라 의서가 최고로 칭송받던 시기, 그럼에도 허준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의서를 편찬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다. 새로운 JCOE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두려워 않고, 총 책임자로서 역할에 충실한 임종표 차장의 모습에서도 도전정신을 볼 수 있다.

04

**열의** 동의보감을 편찬하는 것에 대한 허준의 열의, 세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임종표 차장의 열의는 다른 누구보다 뜨겁다. 이들의 열의가 기존의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새로움을 만들어낸다.

05

**끝없는 배움** 여러 명의 스승 밑에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은 허준과 배움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을 만들 수 있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는 임종표 차장.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한다.





# Harmony

팀을 이뤄 경기를 하는 스포츠의 경우,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가 많다고,  
체력이 좋은 젊은 선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팀 안에서 다양한 선수가 조화를 이뤄  
승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야 합니다.

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진 직원,  
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선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직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세아인이 모여 뛰어야 합니다.  
세아라는 팀을 위해 신구(新舊)의 조화를 이룰 때,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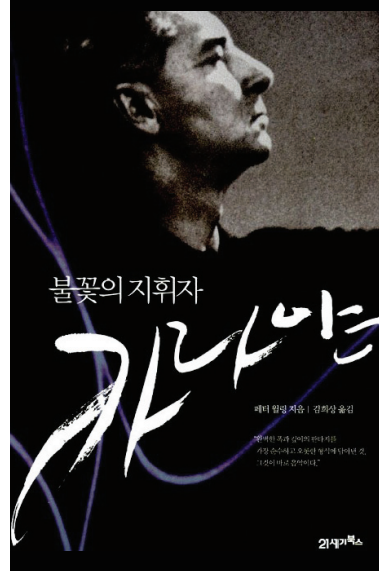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오케스트라 자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웠고, 수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보는 음악회’의 장을 연 장본인입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훌륭한 연주, 멋있는 지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모든 연주와 모습이 철저한 기획과 연출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 보면, 눈으로 얻는 정보가 전체 정도의 55%나 된다고 합니다. 보는 음악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연주회장에서 경험하는 수준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카라얀은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연 지휘자이자 연출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조화에 대한 새로운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 음악칼럼니스트 백기락

## 조화 속에서

## 완벽함 찾은 카라얀



## 조화

### 조화로운 음악은 완전한 이해에서 완성된다!

카라얀을 보고 있노라면 그가 천재 지휘자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지만, 지휘자가 된 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였습니다. 카라얀은 지휘자로서 재능 자체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라얀은 지독한 연구와 연습을 하기로 유명했는데, 쇤베르크의 〈변주곡〉을 연주하기 위해 1만 시간을 연습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연구하고 준비한 지휘자와 그렇지 않은 지휘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를 얼마나 세세하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의 특성상 동시에 10여 개의 악기가 각자의 파트를 연주하는 순간이 있는데, 한 두 악기 정도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준비를 한 지휘자들은 한 파트의 소리가 나지 않거나 틀렸을 경우는 물론, 악기군(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의 경우, 십수 명이 동시에 같은 악기로 연주를 합니다)에서 일부 연주자가 소홀히 연주하는 것까지 짚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한 완벽한 준비는 비록 내가 그 악기를 연주하지 않더라도 그 연주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 그 연주에 관여할 때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훌륭한 지휘자를 만난다는 것은 곧 그 오케스트라(조직)가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어떤 지휘

자가 지휘를 했느냐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몇 단계 높아지기까지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서로의 역할에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끌어내고, 내가 기대하는 성과에 근접하려면 그 사람에게 대해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카라얀의 오랜 연습은 결국 오케스트라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고, 그를 카리스마 리더의 대명사로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카리스마 리더가 ‘무조건 자신만의 뜻을 고집하는 리더’로 비쳐지곤 하는데, 카라얀은 오랜 준비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지휘가 단원들에게 스며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조화로운 음악은 탁월한 성과로 증명된다!

카라얀에 대한 비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의 카리스마 리더십은 독재적 리더십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그의 연출된 행동이나 상업적 성공은 음악가로서의 존재를 의심하도록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연주는 귀로 듣는 음악을 넘어 볼 수 있는 음악의 지평을 열었고, 수십만 원의 티켓을 사야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음악에서 만원짜리 한두 장으로도 세계적인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는 신시장을 개척, 역사상 가장 성공한 지휘자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그와 가장 오래도록 함께 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세계 3대 오케스트라’라는 칭호와 함께 가장 초청을 많이 받는 오케스트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조화로운 음악을 연주할 때 청중은 극한의 감동을 받습니다. 비록 단원 개개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때로는 지휘자가 대부분의 찬사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카라얀이 뛰어난 지휘자라 할지라도 그와 호흡을 찰떡같이 맞춘 오케스트라가 없다면 아무 것도 들려줄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공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사랑하게 되었고, 클래식 연주자로, 지휘자로 도전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카라얀이었기에 조화로운 음악이 가장 완벽한 음악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이자 사실입니다.

음악이 지향하는 목표는 ‘하모니(조화)’입니다. 음악의 3대 요소로 하모니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릴 적 배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 보셨나요? 그 생각을 떨칠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가장 완벽한 음악이 탄생하고, 그 음악을 통해 고객은 감동받게 됩니다. 전체가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음을 추구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 새로운 시대, 새롭게 도약하는 세아

10월 18일 세아의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위한 이운형 회장과 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세아홀딩스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이운형 회장의 발표내용을 경청했다. 50년을 이끌어온 세아의 강점과 향후 50년을 이끌어갈 세아의 미래 핵심가치에 관한 이운형 회장의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자.

## 이운형 회장



### 52년 세아, 세아만의 장점

지난 50여 년간 세아를 지탱해온 힘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세아그룹 이운형 회장은 세아만의 세 가지 장점이라고 말한다. 그 장점은 진취성, 합리성, 도덕성이다. 세아그룹은 일찍부터 수출을 시작했다. 수출은 품질, 관리가 월등해야 하고, 고객 확보에도 힘을 쏟아야 하면서, 고객의 클레임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하는 등 높은 기준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다. 이러한 점이

이운형 회장이 말한 세 가지 중 진취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아는 지속적인 해외 진출로 해외 합작회사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해외 법인인 SeAH Steel America는 동종업체 대비 월등한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아가 진취적 성취를 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힘은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을 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운형 회장이다. 세아의 두번째 강점인 합리적 경영은 세아가 선진 경영제도를 일찍 도입하고, 기업공개추진법(73)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기업공개를 실시(69)해 투명한 경영을 해온 점으로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에 홀딩스를 설립해 지주회사제를 도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과거 한국 기업 발전에 있어 정경유착 관행이 있었지만 세아는 그 보다는 조금은 속도가 더디더라도 자립 성장에 주력했습니다. 세아의 창업주는 ‘본인 것을 회

사에 줄 지언 정, 회사 것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고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런 정신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세아의 정신이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세아의 도덕적 경영을 설명했다.

### 저성장 기조와 공급 과잉의 철강시장

2013년 세계경제는 3% 초반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특히 유럽은 0%대 성장 체제의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중국은 7% 성장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 여타로 3% 초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운형 회장은 “이 같은 좋지 않은 경제 전망은 철강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신일본과 스미토모의 합병, 아셀로미탈 철강석 자급률 100% 목표, 바오산강철과 허베이강철 합병 전망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철강수요는 14.2억t, 조강생산 15.4억t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공급 다변화에 대한 이점은 있으나, 철강시장의 경쟁과열 상황은 이미 예고되었다.

### 100년의 역사 만들어갈 세아의 핵심가치

세아의 미래 핵심가치로는 우선적으로 실력이라고 말하는 이운형 회장. “과거에는 정보를 선점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인만큼, 정보 선점의 기회보다는 정보 활용의 능력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면밀한 이해를 통해 기회와 위기를 포착할 수 있는 통찰력과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회장은 이에 덧붙여 “이를 갖추기 위해 운영을 위한 시설 투자 외 효율/효과를 높이는 전략 투자에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인재의 확충 및 보유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운형 회장이 실력과 더불어 세아의 미래 핵심가치로 꼽은 것은 M&A인데, 대변환의 시대에 또 다른 기회가 되는 만큼 세아의 전문성과 경쟁력, 시너지를 높이는 M&A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두 가지 핵심가치를 설명한 이 회장은 그 가치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며, “정직을 근간으로 기업의 기본을 지키며 남이 본받을 만한 품격 있는 회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세아의 가장 큰 핵심가치라고 힘주어 말한다. “세아는 과거 고속 성장의 시대에 정직을 근간으로 50여 년의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향후 미래 대변환의 시대에도 정직을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 사랑받는 기업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간담회를 마쳤다.







## 세아홀딩스 핵심가치 워크숍 현장

세아홀딩스의 핵심가치를 재정립하는 워크숍이 진행됐다.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은 세아가 지켜왔던 핵심가치들을 생각해보고 세아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가치들에 대해 모든 직원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참여했던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함께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질지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과연 세아홀딩스의 핵심가치 워크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글: 세아홀딩스 미래전략파트 김철홍 수석

### 사전준비로 이미 시작됐던 워크숍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임직원들의 다양성이 부각되면서 세아홀딩스에서는 앞으로 통합 시너지와 경쟁력 창출을 위해서 의사결정의 기준, 소통하는 방식, 제도나 문화 등 일하는 방식을 선진화하고 일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마련된 이번 핵심가치 워크숍은 세아홀딩스의 역할을 정의하고 세아의 성숙한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취지에서 많은 사전 준비가 뒤따랐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가치를 정립한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무진 결실을 맺기 위해 '핵심가치 워크숍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워크숍 진행 세션 구성은 물론, 세아의 기업철학 이해에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우선 세아홀딩스 임직원들 모두가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조(group)에 참가하여 조별 미션을 수행하는 열의를 보이면서 사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또한 워크숍 기자단을 선정하여 세아홀딩스 시니어 층을 대상으로 경험을 통해서 본 세아의 가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워크숍을 앞두고 회장단 역시 세아의 경영철학 전파에 관심을 갖고 100년 기업을 향한 세아의 가치 정립을 위해 간담회를 준비했다. 핵심가치를 두고 소통하는 열띤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워크숍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 직원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워크숍

워크숍이라 하면 전문 강사의 열띤 강의나 토론보다는 술 한 잔 기울이며 동료들과 나눴던 진솔한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듯이, 세아홀딩스 핵심가치 워크숍은 직원들의 마음에 맞춘 프로그램들로 채우는데 주력했다. 우선 시작은 직급과 이름이 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동료라는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세션에 몰입하기를 기대하면서 어렸을 적 보았던 밝고 희망찬 만화 캐릭터들을 개개인의 별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서로를 바라보고 불러보며 쉽게 웃을 수 있었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워크숍의 서문을 열 수 있었다.

그리고 발표된 조별 미션은 한 편의 뮤지컬처럼 진행되어 모두가 웃고 감동하는 시간이 되었다. 개별 프로그램들은 토론 게임처럼 구성되어 시골장터 같은 시골벽적 하면서도 시험장 같은 긴장감이 공존했다. 그중 백미는 프로그램 끝마차 발표되는 우승팀 그리고 깜짝 선물이었다. 은근히 조별 경쟁을 독려면서도 의제에 더욱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 워크숍 프로그램 통한 세아만의 핵심가치 찾기

“짜잔~, 아악!” 워크숍 2일차, 마시멜로 게임에서 각 조별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조원들이 제한된 시간에 구조물 쌓기 경쟁을 벌였는데, 다 되었다 싶을 때 와르르 무너지며 탄식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어진 마시멜로 게임이 의미하는 짙막한 강연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치며 공감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시멜로 게임처럼 큰 리스크 부담 없이, 이미 갖추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소단위 프로젝트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시스템이나 업무의 프로세스 변경, 조직의 운영방식 개선, 다양한 아이디어 시도 등. 그런데 문제는 작은 일에도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워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배에 사공이 많아서 일수도 있고, 있어 보이는 보고서를 꾸며 윗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그럴

수도 있고, 일이 실패했을 때 계획이 엉망이라는 책임은 면피해야 된다는 심리도 있다. 마시멜로 게임은 일단 시도하고 실패를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너무 신중한 계획은 의사결정 속도를 느리게 하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실패 확률을 줄여나가는 기회를 상실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었다.

### 핵심가치 워크숍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세아의 변화

세아홀딩스 핵심가치 워크숍은 목적이 분명했다. 워크숍이 마무리될 때쯤 기대하는 산출물로 핵심가치가 정립되어야 하고, 핵심가치 발현 과제들이 도출되어야 했다. 이틀간의 워크숍 결과, 임직원들 모두 기대하는 종착점에 도달했다. 핵심가치로는 정직, 사람중시, 열정, 도전, 전문성(실력) 등으로 가닥이 잡혔고, 과제들은 멘토링 제도, 해외 배낭여행(지역 전문가 제도), 봉사활동, 인사하기 캠페인, 가치전파 어워드, 짝 프로그램 등이 선별되었다. 이 결과들은 잠정적인 것이고 많이 가다듬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세아홀딩스 임직원 모두가 결과물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핵심가치 워크숍은 세아홀딩스 임직원 개개인에게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메시지를 심어주었다. 워크숍의 전후 반응으로 공통된 점은 재미있고 유익했던 시간이다. 이러한 성과는 회장단의 가치경영의 철학 전파에 대한 관심과 강한 의지, 그리고 세아홀딩스 임직원 전체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 이틀간의 워크숍은 끝났지만, 세아홀딩스의 변화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





## 2012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후기

# 세아의 품질 경쟁력 드높인 세아인들

2012년 8월 국가 품질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286개 분임조(3천여 명)가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품질 관련 행사인 이번 대회에 세아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진 세아인들이 나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세아의 이름을 드높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세아제강(군산) 'Seroll'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처음 참여하면서 많이 떨리고 결과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저를 믿고 묵묵히 동참해준 소그룹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전국대회를 계기로 소그룹에서 추진하는 TPM과 개선활동에 많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세아제강 'Seroll'은 '자발적인 TPM 활동으로 설비 종합효율 향상'을 주제로 TPM 0~5스텝 프로세스 총 점검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개별개선 주제는 'CRM 롤 이상 개선으로 시간 가동률 향상'이었다.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과제를 추진하여 Back Up Roll 홈 가공 등 총 8가지 부분에서 개선을 이루었고, 그 효과는 연간 9,600만 원에 이른다.

## 세아특수강(포항) '퍼펙트 불꽃'

“퍼펙트 불꽃 분임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지보전활동으로 고장 로스를 감소시키고, 설비효율 향상에 매진하여 대내외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설비관리 최적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퍼펙트 불꽃 분임조는 공장 내 주요 설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단계별 보전경영 추진사례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준수, 수입설비 국산화, 품질보전 활동 등을 소개했다. 특히, 산세공정 설비고장 로스 개선이라는 테마로 사례를 발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세아예삼 '맨발'

“상을 받는 것은 맨발 분임조이나, 개선테마 발표준비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맨발 분임조가 되겠습니다.”

'맨발' 분임조는 '성형공정 저속 가동시간 단축으로 시간 생산량 증대'라는 테마를 다루었다. 개선 전 성형 설비당 생산량은 평균 376.6kg/hr, 저속 가동시간은 7.94min/hr로 나타났다. 저속 가동시간 발생의 주요 요인인 스트립의 고정 위치, 시작 방향,

속도 전환 센스 등을 개선한 결과 설비당 생산량이 평균 401.9kg/hr로 증가, 저속 가동시간은 4.37min/hr로 감소하여, 성형 공정시간 생산량이 7.29% 향상되었다.



## 세아특수강(충주) '파이터'

“2007년 분임조 활동 시작 이래 지속적인 현장 개선을 통한 품질 경쟁력 확보와 원가 절감을 위한 분임조원들의 노력이 대내외에서 입증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회 출전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과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분임조가 되겠습니다.”

세아특수강 '파이터' 분임조는 '신선 1호기 공정 개선으로 비가동 시간 감소'라는 주제로 개선을 진행했다. 압축 롤러 형태 변경을 포함한 3건의 현장 설비 개선과 1건의 공정 개선을 통해 비가동시간을 15.2% 감소시킨 결과, 연간 998t의 생산량 증가와

1,270만 원의 공정 처리비용 감소로 3,695만 원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다. 개선된 과정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완되고 있다.



## 세아제강(군산) '돌풍'

“2011년 사내 자량대회에서 돌풍 소그룹이 처음으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상 수상을 계기로 12년 6월 지역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여 8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는 아쉽게 동상을 수상했지만,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습득한 지식이 소중한 돌풍 소그룹의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더욱 노력하여 금상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돌풍 소그룹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TPM 활동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TPM 활동으로 설비 종합효율 향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돌풍 소그룹은 현재 5-3스텝 안전환경 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개선 주제는 '컬러라인 설비 개선으로 Scrap 저감'을 발표했으며, 이번 개선 과제를 통하여 수율이 0.14% 향상되어 그 효과가 연간 1억 2천여만 원에 이른다.



## 세아베스틸 '햇살'

“분임조가 하나가 되어 개선활동에 힘쓴 결과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세아베스틸의 대표로 참가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전국에서 손꼽히는 기업들과 한자리에서 경쟁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대회에 임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번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욱 발전하는 햇살 분임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햇살' 분임조는 '전기로 공정 개선으로 조업시간 단축'을 테마로 정했다. 부서 생산목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로 조업시간이 타 사나 타 공정에 비해 길게 유지되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인 분석과 대책으로 '버너 산소의 투입 압력 재설정' 등 총 5가지를 실시하여 전기로 공정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 조화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다름을 인정하자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직장생활에서 일과 사람 중 어떤 부분이 더 힘든가요?” 이에 대한 대부분 직장인들의 대답은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서로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방식으로 상대를 대한다.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자기 방식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최선이 상대에게는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글: 자기개발클리닉 이숙영 대표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 소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 매일같이 신선한 풀을 뜯어다 밥상을 차렸고, 사자는 소의 정성을 생각해 꾸역꾸역 먹었다. 사자도 사랑하는 소를 위해 매일같이 신선한 동물들을 잡아다가 밥상을 차렸고, 소도 사자의 정성을 생각해 꾸역꾸역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로는 이혼하게 되었는데, 법정을 나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 “난 최선을 다했어!” 이처럼 자기 방식의 사랑과 배려는 상대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서로의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직장생활에서 사람들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서로 다르게 살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상대가 나와 어떤 점이 다른지 파악하라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상대를 더 많이 배려할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편안해지면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까지 털어놓게 된다. 눈빛만 봐도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게 되고, 그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저절로 생기게 된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일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다면, 나와 상대의 다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쉽고도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타고난 성격유형을 알아보는 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하면 좋다. 그

한 가지 도구가 애니어그램인데 여기서는 사람의 성격을 크게 3가지(머리형, 가슴형, 장형) 유형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며칠 밤 야근을 한 동료나 부하에게 사랑을 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상사의 방식이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머리형 상사는 “빨리가서 자, 쉬어!”라고 말하고, 가슴형 상사는 “노래방에 가서 함께 놀자!”라고 말하고, 장형 상사는 “제대로 먹자!”라면서 회식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형은 사람과 몸으로 부대끼는 스킨십이 많으면 방전되고 잠을 자거나 혼자있어야 충전되기 때문이다. 가슴형은 혼자있고 관심받지 못할 때 방전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수다를 떨고 스킨십을 할 때 충전되기 때문이다. 장형은 복잡한 일로 머리를 써야 할 때 방전되는 반면, 먹을 때 또는 몸을 쓰면서 땀을 내는 운동을 할 때 충전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 유형의 특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 마음에 꼭 들지는 않더라도 상대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기에, 서로에 대한 갈등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 맥락적 경청(Contextual Listening)을 하라

맥락적 경청이란 겉으로 드러난 말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 감정, 욕구, 배경까지 이해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 의사소통할 때 말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말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의 일부분인 7%만 전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38%는 어조·억양·음성과 같은 소리로, 55%는 말하는 자세, 얼굴표정, 듣는 태도와 같은 몸짓으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한다. 즉 대화에서 언어는 7%인 반면, 비언어적인 부분은 93%를 차지하기에 맥락적 경청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맥락적 경청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연결됨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맥락적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상대에게 주의 집중을 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말에 선분루 판단은 금지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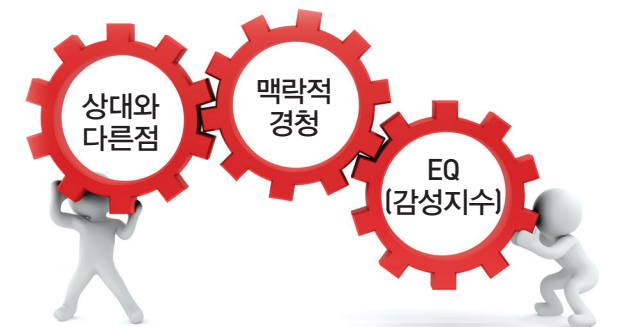
셋째, 내가 보여야 할 반응에 대한 걱정 금지다. 특히 상사와의 대화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상사의 말에 대응책을 찾으려 긴장하다보면 중요한 상대의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칭기즈칸은 “나의 귀가 나를 가르쳤다”라고 했다. 대화의 질과 깊이는 듣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기억하라.

### IQ(지능지수)보다는 EQ(감성지수)를 높여라

감성적이라는 것이 감성지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감성적인 사람이 감성지수가 낮을 수도 있고, 냉철한 사람이 감성지수가 높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감성적인 사람이 자기감정에 겨워 상대방이 느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계속 울면서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감성지수가 높다고 볼 수 없다. EQ가 부족한 사람이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상대의 반응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은 논리에 앞서 감정이 앞서는 존재다.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고 옳아도 충고나 조언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산소의 부족이라 하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옆에 있어도 지금 숨이 막히면 그 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득이 되는 조언을 들어도 그 충고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조사결과, 직업적 성공에 있어서도 EQ는 IQ보다 두 배 이상 중요하게 작용했으며(EQ 66%, IQ 33%), 조직의 리더역할을 할 때도 EQ의 중요성은 85%, IQ의 중요성은 15%를 차지했다.

조화로운 직장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도 상대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관계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다름을 인정할 때 관계의 가능성은 열린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원거리 협업이 늘고 인적 네트워크가 다양화되는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 좌충우돌 세철씨의 직장어사전

최근 버스 안에서 혹은 지하철 안에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중장년층 세대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들리곤 하죠. 바로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런 신조어들은 그들만의 소통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대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직장 내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도 있죠. 신조어를 곁들여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세대 간 직급 간 언어의 장벽은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어울림의 의미

음악이론에서 **어울림(Consonance)**이란 동시에 울리는 두 음이 잘 융합하여 조화롭게 울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학이론에서 어울림(Decorum)이란 작품 속에서 장르, 등장인물과 행위, 문체와 어투 등이 서로 잘 맞는 것을 말합니다.

세아에서 **어울림(Harmony)**이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합심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 혹은 협동하여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어울림이란 무엇입니까?





###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수련회

다양한 전공의 학생과 취업을 앞둔 학생 등 세아의 장학생을 위해 준비된 이번 여름 수련회는 그룹 설명회로 시작을 하였다. 세아를 소개하는 자리가 장학생들에게는 세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세아의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진행된 꿈의 기록 시간에는 학생들 자신의 1년 뒤 모습을 그리고 수련회에 모인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그 모습을 선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재단 클럽에 올려 스스로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년 뒤 수련회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로 이루어지다 보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매년 장학생 스스로가 진행자가 되어 함께하는 실내 게임을 진행하는 데 과정은 서툴지만 어색했던 사이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다.

이번 수련회에 20기 장학생들에게 주어진 1st Project 세아!세아!(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세아 장학생 아이디어 공모). 세아!세아!는 20기 장학생들이 한 달 전부터 조별모임을 통해 아이디어를 내어 준비한 과제로 중고등학생 장학생 멘토링, 사랑의 집짓기, 미소기부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중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는 재단에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서도 장학생들이 가장 만족했던 프로그램은 래프팅이었다. 뜨거운 여름 날씨가 무색할 만큼 장학생들은 열정적이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모두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번 수련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생이 된 선배와 직장인이 된 선배들의 참여로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세아의 장학생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하나 되던 모습과 재단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신도 꼭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학생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수련회의 그리움으로 남는다.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수련회 현장

## 세아 장학생 한 자리에 모이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이 대학생 장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리더십 체험 수련회를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룹 설명회를 시작으로 꿈의 기록, Project 발표, 래프팅, 역사탐방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된 여름 수련회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자. 글: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임이랑





## 잊을 수 없는 한여름의 추억

매년 여름 세아의 장학생들이 힐링과 더불어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와 멋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전국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재단의 장학생 수련회입니다. 올 여름에는 40여 명의 18, 19, 20기 장학생들이 참여하여 강원도로 2박 3일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체계적인 수련회 프로그램들로 채워져서 더욱 즐거운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1년 뒤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작은 목표든 큰 꿈이든 1년 뒤에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을 보드에 그리고 모든 장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캠코더로 그것을 찍어서 1년 뒤에 체크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가장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도 세아의 장학생으로서 제가 적은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였던 동강 래프팅을 했습니다. 조교님을 잘 만나서 좀 더 스릴 있는 래프팅을 할 수 있었고, 강물에서 시원하게 수영하고, 보트로 만든 미끄럼틀을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 서먹했던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20기 회장과 부회장의 진행으로 세아 장학생이 더욱 뜻깊은 활동을 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견을 내기 쑥스러워 해서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봉사활동, 자체 MT 등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에 대해 토론을 할 때는 열띤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역사탐방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많은 걸 보지 못해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잊을 수 없던 또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칼국수였습니다. 수련회에서 먹었던 음식 중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칼국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후에도 저녁에 장학생들과 간단히 맥주를 마시며 다양한 정보교류도 할 수 있었고 친목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학생 수련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더욱 알차고, 수련회에 참가한 장학생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잊을 수 없는 여름방학 추억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기 장학생  
정수영



19기 장학생  
최영주



## 미래를 착실히, 세상을 아름답게

강원도 정선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알차고, 즐거운 수련회를 보낸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겐 특별히 '내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본 계기여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요. 계획된 프로그램 모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1년 후 목표 발표하기는 처음엔 쑥스럽고 오글거렸지만 열심히 생각해보니 하고 싶은 것이 많더라고요. 저는 마라톤과 바리스타, 영어 회화 그리고 취업하기의 목표를 세웠는데요. 현재 바리스타 수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실천 중입니다!

레크리에이션 시간 또한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 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얼떨결에 저희 조가 1등을 했는데, 1등이라는 것은 항상 저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 역시 래프팅은 빼놓을 수 없는 큰 재미였습니다. 동강의 경치를 바라보며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너울이 있는 곳에서는 래프팅의 스릴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물놀이도 하고, 수영도 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강의 자연경관에 취해 수영을 즐기다 보니 동강의 인어공주가 된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떠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또한, 20기에서 준비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예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에 적극 동참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들, 친구들, 귀여운 후배들과의 소중한 인연 또한 제겐 값진 선물이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갔던 2박 3일

지난 8월, 장학생이 되고 난 후의 첫 활동이 있었습니다. 같은 20기로 선발된 동기들과의 재회, 나와 같은 꿈을 꾸는 19기, 그 위 선배님들과의 새로운 만남. 2박 3일간의 레크리에이션, 래프팅, 세아그룹 소개, 장학생 미션 발표 등 모든 것이 설렘이었습니다.

알찬 프로그램들 속에서 저는 또 다른 가족을 보았습니다. 장학생 미션이었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에 대한 발표와 '세아의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특히 마지막 날, 간담회 시간에 세아 장학생이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을 들어보는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부 장학생은 "재단의 지원을 통해, 조금 더 자유로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얘기했고, 일부는 "넉넉지 못한 형편 속에서 학비의 지원을 통해 꿈을 향해 다가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은 부담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반 년 전부터 세아의 장학생이 되기 위해 준비했고, 이제는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보다 세아의 장학생으로서의 부담이 더 있었습니다. '교내에서 세아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의 인재라고 믿어주는 재단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더 지독하게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부담이 제가 생각했던 목표 수준보다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해주었다고... 이렇게 마지막 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말은 다르지만 모든 장학생들이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받은 것만큼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재단의 존재와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본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재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고, 저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까지 생각하는 그런 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20기 장학생  
한시환



20기 장학생  
심현지



## 세아가 가져다 준 행복한 시간

사실, 처음 장학생을 지원할 때부터 세아는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수련회도 함께 진행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은근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선배들이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을 보면서 먹는 것들, 볼 것들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찼는데 실제로 수련회를 가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알찬 프로그램 때문에 놀랐습니다. 특히, 미리 준비해 갔던 조별 Project 발표와, 첫날 했던 각자의 꿈을 발표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납니다. 꿈 발표 내용이 먼 미래는 아닌 1년 후의 목표를 말하는 거였지만 각자의 1년 후 꿈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전까지 얼굴도 잘 모르던 사람들과 한결 가까워지고 장래의 꿈도 대충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분명 다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다음 수련회도 기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Project 발표 시간도 수련회 전부터 준비해갔던 내용을 발표하는 만큼 욕심도 생겼었고, 다른 조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왔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다양하게 나온 아이디어들을 들으면서 다른 무엇도 아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에 신기하고, 재미있고,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별로 진행된 게임, 때마다 맛있게 먹었던 식사, 함께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멋있는 동강의 경치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래프팅,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대화, 정말 열심히 행해주고 함께해주신 세아 직원들 등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 수련회였습니다. 세아가 아니었으면 얻지 못할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인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 바로 인도다. 인도의 정식 명칭은 인도공화국 (Republic of India)으로 힌디어로는 바라트(Bharat)라고 한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 영사관계를 수립한 이후, 1973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현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 진출도 활발해 지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인도의 비즈니스 에티켓을 미리 숙지하고 인상적인 첫인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루자. 자료제공 : KOTRA 뉴델리관



## वन्दे मातरम्

### 인도에서의 시간 약속과 비즈니스 복장

인도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오직 최고위층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중간 관리자를 무시하지는 말자. 의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중간 관리층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을 좀 더 만나기가 쉽고, 우리 편으로 만들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다.

인도의 근무 시간은 통상적으로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까지이므로 약속을 잡을 때 고려하도록 하자.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결정권자인 경영층의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 인도인들은 시간 엄수를 높이 평가하지만 스스로는 실천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유동성 있게 잡을 필요가 있다. 스케줄 변경과 지연은 인도인과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분임을 알아두도록 하자.

인도에서 비즈니스 에티켓을 지키는 의상은 남성의 경우 정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 양복 상의와 넥타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IT 분야는 구두 대신 스니커즈를 신는 등 캐주얼한 의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saree) 또는 사르와르 카미즈(salwar kameez)나 바지 정장을 선호한다. 인도의 여성들은 복장법령에 따라 반바지나 짧은 치마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남성은 가족으로 된 의상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인도 비즈니스맨과 대화 요령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즐기며 비즈니스 미팅에 있어서도 가벼운 잡담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인도인들은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서양에 비해 사생활에 대한 관념이 낮은 편이다.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가족 문화와 발달된 커뮤니티의 특성상 인도인에게 있어 가족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며 심지어 가족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것을 우호의 표시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인도인들은 직접적으로 반대 표시를 잘 하지 않는다. 드러내 놓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대적인 태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도인과 대화 도중 상대가 양 옆으로 고개를 흔들다면 이는 부정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인도인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개인적, 사회적, 경험적 맥락에서 다방면의 질문을 던질 수 있으니 당황해하지 않도록 하자.

인도인들에게 있어 인기 있는 세 가지 화제는 정치, 크리켓, 영화이다. 이 주제들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고 비즈니스에 임하면 관계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도인은 자신들의 풍부하고 오랜 문화적 유산에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므로 인도의 역사에 대해 사전에 공부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들의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도인들이지만 종교에 관해서 논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인도의 빈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런 주제를 꺼낸다면 아주 무례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인도는 다양성과 지속성을 함께 갖춘 국가이다. 문화, 종교, 인종과 언어, 지역별 특성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가운데, 5,000년 이상 된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하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도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공격적인 비즈니스로 인도에서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



### 인도에서 선물을 하게 될 경우에는...

- 첫 만남에서 선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식사 초대를 받았다면 인도 전통과자 스위트(Sweet)를 준비해 보자.
- 돈을 송금할 경우 인도인들이 길하게 여기는 11, 51, 101, 501 숫자에 맞춰 보내보자.
- 우리나라 전통물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선물 시 포장지 색상은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이 좋다.





# 추녀(秋女)들, 커피향에 취하다 세아홀딩스 미녀 사총사

갓 내린 커피 한 잔이 절로 생각나는 빗줄기 흠뻑리는 아침. 세아홀딩스의 미녀 사인방이 버버리코트 자락을 펴리며 길을 나섰다. 가을과 잘 어울리는 바리스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껏 들뜬 그녀들의 모습에 모두가 덩달아 행복했던, 커피향 가득한 하루를 공개한다. 글: 이경희 사진: 윤상영



## 우리, 코드 맞는 여자들이에요

이른 아침, 논현동에 위치한 바리스타스쿨에 도착하자 어디선가 낭랑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늘의 주인공 세아홀딩스 경영관리팀 안미경, 신주영, 홍정은, 전략기획팀 유원정 사우다. 조심스레 강습교실로 들어서자 외락 반갑게 인사를 해오는 품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대하듯 격의 없고 쾌활하다. 나 이도 팀도 다른 이 네 명이 어떤 공통분모로 뭉쳤는지 궁금했지만 동석해보니 이내 이해가 간다.

“우리는 정말 코드가 딱 맞아요!”

다시 한 번 왁자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들. 직원들 숫자가 많지 않아 늘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어울리다가 단짝이 되었다는 이들은 말 그대로 서로가 회사 생활의 도우미이며 멘토이자 멘티인 관계로 서로에게 큰 힘이 돼주고 있었다.

홍정은 사우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활력소”라며 애정을 표시했고 안미경 사우는 “속 얘기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쁘다”는 말로 사회에서 만난 흔치않은 인연에 감사했다. 입사 7년차로 신주영 사우와 함께 왕언니 노릇을 하는 경영관리팀 안미경 사우 역시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만난 무엇보다 소중한 동료들”이라며 따뜻한 미소를 보낸다.

강습시간이 다가오자 모두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커피 마니아이며 하루의 시작을 꼭 커피와 함께 한다는 네 사람 모두, 좋아하는 커피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배운다는 사실에 큰 기대감을 나타낸다.

“오늘 수업 덕분에 진짜 바리스타 공부가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신주영 사위의 웃음에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만들기

오늘 바리스타 수업을 진행해 줄 분은 방준배 강사. 가로수길에 소문난 실력과 바리스타로 강좌도 함께 열고 있는 경력 4년차의 트레이너다.

지금까지의 왁자했던 분위기는 잠시 잊고 네 명의 사우 모두 수업에 집중력을 발휘한다. 커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두의 특성에 대해서 듣고 강사가 내놓은 커피콩과 원두를 직접 만져보고 비교해 향을 맡아본다. 단순히 “좋아하는 음료”였던 커피가 학문적 대상이 되는 순간, 모두가 진지하기 짝이 없다. 신주영 사우는 그 와중에 선생님의 질문에 곧잘 대답하는 저력을 보여줘 모두를 살짝 놀라게 하기도.

간단한 이론수업이 끝나고 본격적인 실습시간이 되자 다시 본연의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은 강의실 안. 오늘은 선생님의 지도하에 핸드드립 커피를 직접 내려 보기로 했다. 다양한 드립퍼(필터를 장착하는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종이필터를 접는 법도 하게 제대로 배운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볼 땐 쉬위 보였는데 막상 제대로 배워보려니 보통 일이 아닌지라 여기저기서 끄끙 앓는 소리다.

드립퍼에 물을 따라 원두를 적시는 동작을 배우는데 손목 스냅이 아닌 몸, 어깨를 움직여 가늘고 일정한 물줄기를 따르는 게 포인트. 물이 나오다 끊기고, 끊어졌다 가늘어졌다, 마음처럼 흘러나오지 않는 물줄기에 모두가 안타까운 한숨을 쉬며 몰입한다.







연습하는 와중에 원두를 미니오크통 속이 아닌 바닥에 그냥 갈아버리고 테이블 위의 원두가루를 쏟는 등 모두가 감춰뒀던 실수 실편을 하나 둘씩 꺼내드는 바람에 진지했던 강의실은 다시 폭소로 뒤덮였다.

### 커피를 마시는 법, 인생을 즐기는 법

커피의 맛을 좌우하는 것에는 원두, 온도, 공기, 물, 바리스타의 컨디션 등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선생님의 말에 이번엔 둘씩 짝을 지어 각기 다른 커피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원두의 양을 달리해 두 사람은 진하게, 남은 두 사람은 연하게 타보고, 스윙(드립퍼에 물을 흘려넣는 동작) 속도에 따라 커피 맛이 어떻게 다른지도 둘씩 짝지어 실습해 보았다. 그 와중에 선생님께 커피 맛이 가장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은 홍정은 사수가 박수를 받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지만 그 영광도 잠시, 가위 바위 보에서 지는 바람에 설거지 당번에 당첨되는 아픔을 바로 뒤이어 겪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커피가 나오면 코로 향기를 맡고, 공기와 함께 혹은 들이마시며, 혀로 그 커피를 음미하며 넘긴 뒤, 다시 코로 나오는 향을

맡으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두가 자못 진지하게 시연을 해본다. 그러나 공기와 함께 혹은 커피를 들이마시라는 단계에서 다들 막걸리라도 마시는 양 어찌나 요란스런 소리를 내는지 당사자는 물론 촬영 스태프들까지도 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됐지만, 어찌 소문난 바리스타인 선생님의 커피 맛을 안 볼 소냐. 네 명 여자들의 애교와 협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자 방준배 선생이 바쁜 와중에도 두 손, 두 발을 들었다. 그리곤 웅기중기 모인 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서둘러 카푸치노 만들기에 돌입한다. 원두를 갈고 탬핑을 하고 진한 에스프레소를 뽑은 뒤 뜨거운 우유를 넣고 다시 그 위에 몽글몽글 풍성한 우유 거품을 얹으니 멋진 카푸치노 완성. 그 위에 그려 넣은 멋진 하트는 덤이지만 여직원 모두 자기 커피 잔의 하트에 집중하는 바람에 난데없는 아웅다웅 하트 품평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큰 박수로 강의를 맡아준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드린 네 명의 여학생들. 선생님이 자리를 떠난 뒤에는 “맛있다”를 연발하며 소중하게 카푸치노를 맛보고 강습 후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다.

### 사인사색, 우리는 커피 같은 여자입니다

수업시간 내내 웃고 집중하고 팔을 달달 떨어가며 열심히 강습에 임하는 네 명의 사우들을 보자니 절로 커피가 떠오른다.

유쾌하고 직선적인 아메리카노 같은 유원정 사우, 부드러우면서도 발랄한 카페라떼 같은 안미경 사우, 진하고 깊은 에스프레소 같은 홍정은 사우, 몇 겹의 매력을 자랑하는 카푸치노 같은 신주영 사우. 죄다 다른 이름이지만 베이스는 모두 커피인 그들. 뚜렷한 개성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일맥상통하는 밝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발견하고 교환하기에 이들이 소문난 단짝이 된 건 아닐까?

특히 경력사원으로 들어와 이제 입사 9개월차가 된 신주영 사우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각별하다. 초창기 낯선 환경에 정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쌓여 있을 때 이들이 보여준 배려와 의리 덕분에 이만큼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향이 잘 맞았고 그 덕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여기까지 왔지요. 앞으로도 서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자칫 딱딱하고 재미없게 흘러가기 쉬운 사회생활에서 꼬꼬마 학생 시절 때부터 우정을 나눴던 듯한 묵직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세아홀딩스 미녀 사총사들. 서로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며 마치 찌기라도 한 듯 “변치 않고 계속 이 만남을 유지”해 가길 바라는 그 마음이 늦가을의 쌀쌀함을 훈훈하게 덤긴다.

추운 겨울을 향해 성큼성큼 달려가고 있는 시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커피향 가득한 멋진 수업을 좋은 동료들과 함께 받은 그들의 얼굴이 새삼 반짝반짝 빛난다. 주말에 계획된 즐거운 파자마 파티도,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해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는 다부진 모습들이다.

모두가 한바탕 떠들썩했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는데 유원정 사수가 슬쩍 한마디 건넨다.

“저희들 모임 이름이요. <그녀들의 유혹>이라고 지금 막, 지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까르르, 모두가 다시 한 번 터뜨린 웃음이 호수 속에 던져 넣은 돌멩이가 만든 파문처럼 멀리멀리 퍼져나간다.



**● 그룹 뉴스**

**〈세아가족〉사보 IBA 금상 수상**

그룹사보 〈세아가족〉이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제9회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이하 IBA) 시상식에서 3개 부문 수상의 쾌거를 거두었다. 10월 15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세아가족〉은 ‘출판: 기타출판물-기업’ 부문에서 금상, ‘올해의 Communication/IR/PR’과 ‘최고 사내보’ 부문에서 각각 은상과 동상을 차지했다.



**● 세아 제강**

**동국알앤에스자산인수**

세아제강이 9월 21일 동국알앤에스 포항공장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자산을 총 131억 원에 최종 인수했다. 세아제강 포항공장에 인접한 동국알앤에스 공장은 약 6,200평 규모로 구조관 중심의 생산라인을 갖췄다. 포항공장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서 소구경 재료관 설비 2기를 인수한 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창립 52주년 기념식 개최**

세아제강이 10월 19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본사와 각 지방 사업장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기념식을 통해 장기 근속자와 모범 사원의 공로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산행 등이 사업장 별로 추진됐다. 아울러, 세아제강의 전 임직원들은 올해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약속했다.



**창원공장, 사랑의 헌혈행사 추진**

세아제강 창원공장에서 사랑의 헌혈행사가 추진됐다.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연대하여 추진된 이 행사는 창원공장 임직원과 창원공장 내 상주하는 관계사 및 협력사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특히, 혈액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시기에 집중 시행되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

**● 세아 베스틸**

**전역 병사들과의 교류행사 개최**

세아베스틸이 8월 31일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전역 병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세아베스틸과 제20전투 비행단이 만난 두 번째 자리로 준사관 및 주임원사, 전역 병사 등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소개, 취업 면접 노하우 강의, 압연·단조 공장 견학 순서로 일정이 진행됐다. 세아베스틸은 공군 제20전투 비행단과 1사 1병영 자매결연을 맺어 일반 사병들에게 인재, 직무, 재테크, 그리고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세아베스틸은 9월 11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윤기수 부사장과 설승욱 노조위원장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임단협 타결에 대한 격려, 회사의 지속 성장과 직원들의 미래 발전을 위한 노사화합 공동 선언, 임금 및 일부 내용이 개정된 단체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15회에 걸친 교섭을 거쳤다.

**단조사업본부 위기극복 결의대회 개최**

단조사업본부가 9월 15일 모악산 정상에서 위기극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지용 본부장을 비롯한 단조사업본부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결의대회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위축과 경쟁 심화로 인한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단조사업본부의 비전인 ‘Hi-Tech Forge Master’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담아 직원들은 모악산 정상에 도착 후 결의문을 제창하였으며, ‘Yes, We Can!’이라는 본부 슬로건을 외치며 세계 최고의 단조 메이커가 될 것을 다짐했다.



**희망나눔 후원금 군산시 기탁**

세아베스틸이 9월 25일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차상위 취약계층, 그리고 수재민들에게 희망 나눔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세아베스틸은 이날 군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과 13개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시 취약계층 가정 6세대에 장판 지원 및 도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다물단은 추석명절 동안 장애인과 독거노인 30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하며 추석맞이 사랑나눔기 행사를 가졌다.

**박준두 창녕공장장 군산시 감사패 수상**

세아베스틸 창녕공장 박준두 공장장이 10월 4일 군산시로부터 명예시민증과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준두 공장장 주도로 세아베스틸은 매년 전국 대학을 순회하며 5~13회에 걸쳐 취업설명회를 개최, 군산지역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사내 봉사단체를 결성해 배식봉사와 아동시설 방문 등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를 형성했다.



**● 세아 특수강**

**포항공장 ‘사랑의 라면’ 후원**

포항공장이 추석을 앞둔 9월 25일 경북 시각장애인 연합회에 라면 160 상자를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연합회를 통해 포항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된다. 세아특수강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의 모금과 회사 지원금으로 ‘사랑의 라면’ 후원 활동을 추진해왔다. 시각장애인 연합회 측은 전달식을 통해 그 동안 물품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한국 번디**

**평택공장, 지역 봉사 활동 참여**

한국번디가 9월 27일 평택 부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한 ‘한가위 한마음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 자원봉사에 나섰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저소득 노인 1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 전반적인 행사 진행과 준비를 도왔다. 송편 만들기 등 각종 이벤트 현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한 직원들은 지역주민과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광주공장, 2012 BEST HRD 기업에 선정**

한국번디가 9월 1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201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으로 선정됐다. 한국번디는 인사관리, 성과관리, 인사시스템 전반의 인적자원관리 인프라 확보와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사내 학습조직 운영, 다양한 교육 훈련 실시로 인적자원관리와 자기개발 분야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방라몽 소년의 집 봉사활동

타이세아가 9월 22일 태국 람차방에 위치한 방라몽 소년의 집(Bang-lamung Home for Boys)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동욱 법인장 외 4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내외부 환경을 정리하는 작업을 돕고, 쌀, 스낵, 라면, 축구공 등 생활 필수품, 운동기구와 함께 직원들이 직접 모금한 성금도 기부했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한 방라몽 소년의 집은 7~18세의 고아나 가출아이를 돌보는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약 120명의 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다.



### 창조적·통섭형 인재육성 월례특강 실시

세아에샵은 9월 27일 사내 대강당에서 창조적·통섭형 인재 육성을 위한 월례특강 1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약 100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Insight & 혁신'을 테마로 지난 1년 동안 매월 테마별로 그 분야에서 뛰어난 강의를 선보였던 강사를 섭외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윤호일 책임 연구원이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의를 펼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 Lean Kick-Off 실시

세아에샵이 8월 13일 대강당에서 Lean Kick-Off을 실시했다. 사무직 전 임직원 및 현장 전문팀장 등이 참석한 이 행사는 Lean의 간단한 개요, Lean 혁신 활동 추진 계획, 그리고 대표이사 담화 순으로 구성되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세아에샵의 Lean 프로젝트는 원가 절감과 재고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 플랜트사업부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최

세아이엔티 플랜트사업부가 포스코 국제관에서 9월 7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세아이엔티의 임원,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기술·설계 경쟁력을 갖춘 EPC 회사로 도약하는 계획 수립, 자재·구매·공사발주 시스템 구축 방안, Oilsand Project 수주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으로 구성됐다.



### '2012경북청년일자리한마당' 참가

세아로지스가 9월 7일 구미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경북 청년일자리 한마당'에 참가했다. 대구, 경북 구직 희망자 총 4천여 명과 1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한 이 행사에서 세아로지스는 압도적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했던 제조업체들 가운데 유일한 물류회사로 구직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세아로지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인뿐만 아니라 회사 홍보도 겸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세아홀딩스

- **입사**  
김기용 사업개발 2파트
- **결혼**  
이은영 미래전략파트

## 세아제강

- **입사**  
최규하 포항 생산2팀  
권병욱 포항 생산2팀  
정연규 포항 생산2팀  
손경익 포항 생산2팀  
이동섭 포항 생산2팀  
김동환 포항 생산2팀  
백상우 포항 생산2팀  
김준호 포항 생산2팀  
문봉건 포항 생산2팀  
박승원 포항 생산2팀  
김웅열 포항 생산2팀  
김진협 포항 생산2팀  
이남득 포항 생산2팀  
김대영 포항 물류팀  
손운익 포항 생산2팀  
조성환 창원 생산팀  
손 학 포항 생산2팀  
마지영 STS영업팀  
고영진 창원 업무출하반  
황석환 창원 생산팀  
송진길 창원 생산팀  
서소진 창원 품질경영팀  
김숙영 창원 생산팀
- **결혼**  
정원민 포항 품질경영팀
- **출산**  
예준희 회계팀  
이기호 군산 업무지원팀  
문상묵 군산 생산2팀  
이종택 강관2 생산팀

## • 조의

- 김익곤 수출1팀 (모친)
- 서창덕 회계팀 (부친)
- 박형규 창원 품질경영팀 (부친)
- 이춘우 포항 생산1팀 (모친)
- 김창덕 포항 물류팀 (모친)
- 이화우 포항 생산2팀 (모친)
- 최충식 포항 관리담당임원 (장모)
- 박근덕 포항 생산2팀 (부친)
- 정철화 포항 물류팀 (부친)
- 황용진 포항 설비보전팀 (장인)
- 최진구 포항 생산2팀 (부친)
- 김병성 포항 생산1팀 (장모)

## 세아베스틸

- **결혼**  
한복수 단조설비팀  
최영욱 업무지원팀  
조우진 연주팀  
전지환 소형압연팀
- **조의**  
강효식 연주팀 (부친)  
강홍근 대형정정팀 (부친)  
유인명 품질보증팀 (모친)  
유해광 일반단조팀 (모친)  
김병동 제강팀 (모친)  
한경열 제강팀 (장인)  
이호진 제강팀 (장인)  
정재훈 제품연구그룹 (장인)  
공현식 제강팀 (장인)  
박건우 품질보증팀 (장인)  
문희주 수입검사팀 (장인)  
윤정하 압연설비팀 (장모)

## 세아특수강

- **입사**  
정재웅 경영기획팀

## • 결혼

- 손기홍 중주 물류자재팀
- **출산**  
이경도 포항 생산팀  
오병곤 포항 생산팀  
지종규 중주 생산팀

## • 조의

- 정용범 포항 품질보증실 (조모)
- 안현기 포항 생산팀 (조모)
- 김혜정 포항 업무지원팀 (부친)
- 강대원 포항 생산팀 (장인)
- 전창연 중주 품질보증팀 (조모)
- 임현진 중주2 생산팀 (부친)

## 한국번디

- **입사**  
이준호 평택 생산팀
- **결혼**  
정태운 평택 생산팀
- **출산**  
권용일 평택 영업기획팀  
손상영 평택 생산팀  
박철진 광주 생산팀  
박동희 광주 생산팀
- **조의**  
권영주 평택 경영관리팀 (백부)  
김유영 평택 생산팀 (누나)  
나정만 광주 생산팀 (형)  
이승훈 광주 생산팀 (장인)  
김선욱 광주 생산팀 (조모)  
이선호 광주 생산팀 (조모)

## 세아ESAB

- **입사**  
설종윤 국내영업팀

## • 결혼

- 최두용 구매물류팀
- 강정환 생산팀
- 서민균 재경팀

## • 출산

- 장유일 재경팀
- 강봉규 품질경영실

## • 조의

- 오경수 생산팀 (장인)
- 이창호 구매물류팀 (부친)

## 세아E&T

- **입사**  
이상원 터보 품질반  
박재호 플랜트 토건팀  
이건호 터보 사업지원팀
- **출산**  
정주용 플랜트 생산파트  
이준섭 화공 보일러기술파트

## 세아로지스

- **입사**  
이민중 중주영업소  
김주훈 순천영업소  
정현수 부산영업팀  
김지은 인천물류센터  
김석영 재경기획팀
- **결혼**  
김보경 재경기획팀  
김민지 수출입통관팀

## 해덕스틸

- **결혼**  
편무범 광주영업팀
- **조의**  
박범수 신사업TFT1팀



# QUIZ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주세요.

〈정답표시는 엽서에 해주세요〉



## \*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 SeAH Reader's

〈뿌리 깊은 나무〉칼럼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혁신'이라는 말은 정말 자주 듣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임을 새삼 느끼며, 독서로 자신을 수양한 세종의 이야기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영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철강캠프 도전기〉칼럼을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아빠가 일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도 알고, 또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사춘기 딸이 빨리 철이 들지 않을까 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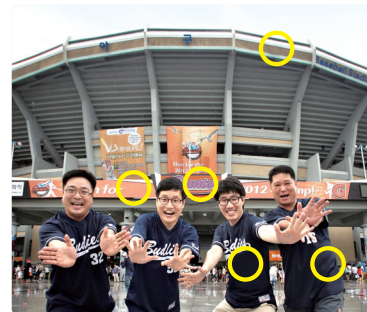
김경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참 야구시즌이어서 그런지 세아에샵 야구광들의 열정이 넘치는 기사를 읽고 저도 모르게 야구장에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병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 지난 퀴즈 당첨자

임정민 경남 창원 의창구 팔용동  
손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김병철 경남 창원 성산구 웅남동  
정경석 대전 중구 문화1동  
권영수 경남 창원 의창구 대원동  
김영규 전북 군산 지곡동  
김경숙 경남 창원 성산구 상남동  
남택주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동  
박희정 서울 송파구 가락동  
황희수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구암1동



〈지난호 퀴즈 정답〉

## 〈세아가족〉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김동기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기획팀  
손은숙 세아에샵 경영지원실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상기 세아이엔티 플랜트사업지원팀  
김민구 세아엠앤에스 서울사무소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지원팀

당신의 생활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새로워질 것이다  
빠르고 안락한 자동차와 고속철이 새로워질 것이다  
더 거대한 선박이 바다를 누빌 것이며  
더 놀라운 설비시스템과 IT기술 및 에너지산업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새로움을 더해줄 것이다  
이것이 세아가 종합 인프라기업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증거다

**SeAH 세아**

세아홀딩스 · 세아제강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한국번디 · 세아ESAB  
세아메탈 · 세아M&S · 세아네트웍스 · 세아로지스